

북한, 내년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참가하나

국제탁구연맹 홈페이지 기사 싣고
 “북 여자탁구 상승세…참가 기대감”
 출전 의향 밝히면 긍정 수용
 남북 단일팀 논의 급물살 전망

국제탁구연맹(ITTF)이 내년 2월로 연기된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단체전)에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을 조명했다.
 15일 현재 아직 북한의 부산 세계선수권 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ITTF는 최근 홈페이지에 북한 여자 탁구의 상승세를 분석하는 자체 기

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ITTF는 “북한은 내년 부산 세계선수권과 2020 도쿄 올림픽을 겨냥해 지금까지 보여준 잠재력을 폭발하려고 한다”고 전망했다.
 북한 여자팀에는 김송이와 차효심, 편승경이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때 아시아에서도 변방으로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북한 여자탁구는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올림픽보다 세계선수권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북한 여자 대표팀은 2016년 말레이시아 세계선수권(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15년 만에 시상

대 위에 올랐다.
 2018년 스웨덴 세계선수권(단체전) 때는 한국과 역사적인 단일팀을 이뤄 또 한 번 동메달을 따냈다.
 북한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단체전 은메달을 따내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올 초 열린 도쿄 올림픽 세계 단체예선전에서는 16강에서 한국을 3-1로 거꾸르치고 도쿄행 티켓을 먼저 거머쥐었다.
 ITTF는 “북한 여자 대표팀은 국제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으로 성장했다. 2021년은 북한 탁구계에 매우 짜릿한 해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의 부산 세계선수권 참가 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였다.

한국 탁구계도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세계선수권에 북한이 참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회 참가국이 모두 결정된 상태지만, 부산 세계선수권 조직위원회는 북한이 늦게라도 참가 의향을 밝힌다면 ITTF와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특히 남북 탁구는 2018년 스웨덴 세계선수권 단체전 여자팀을 시작으로 그해 코리아오픈과 그랜드프라이널스 혼합복식 등에서 단일팀을 재현했던 좋은 기억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 2월 부산 세계선수권에 출전한다면 남북 단일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연합뉴스



바둑 레전드 대결서 서봉수 꺾은 유창혁 “인공지능으로 공부”

‘일지매’ 유창혁(사진 왼쪽) 9단이 4년 만의 시니어바둑리그 복귀전에서 또 다른 전설 서봉수 9단을 꺾었다.
 유창혁은 14일 서울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바둑리그 1라운드 2경기에서 서봉수에게 228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유창혁은 신생팀 서울 데이터스트림즈, 서봉수는 3년 연속 우승팀인 부산 KH에너지의 에이스이자 주장이다. 또 한국 바둑의 레전드로 꼽히는 두 기사의 대결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유창혁은 초반부터 계속 앞서갔지만, 초읽기에 몰리면서는 실수를 범하며 역전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봉수도 초읽기 상황에서 실수를 저지르자 유창혁이 재역전에 성공했고, 이후로는 여유롭게 앞서며 승리를 따냈다.
 유창혁은 “요즘 인공지능 등으로 많은 기보를 놓아보고 있다”며 “과거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각오를 전했다.
 데이터스트림즈는 데뷔전에서 KH에너지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안관욱 9단(데이터스트림즈)이 조대현 9단(KH에너지)에게 승리하고, 정대상 9단(데이터스트림즈)이 노영하 9단(KH에너지)에게 패하면서 종합전적 2-1로 데이터스트림즈가 승리했다. /연합뉴스

동강대 야구, U리그 설욕전 베틀다

대학선수권 17일 단국대와 첫 경기
 동강대 야구부(사진)가 ‘제75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U리그 설욕전을 펼친다.
 홍현우 감독이 이끄는 동강대는 17일 오전 9시 충북 보은 스포츠파크야구장에서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토너먼트 대결로 벌어지는 이번 대회의 첫 상대는 단국대다. 지난 8일 천안구장에서 열린 ‘2020 KUSF(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학야구

U리그’에서 만났던 상대다.
 동강대는 이 경기에서 6회까지 3-1로 앞섰지만, 7회와 9회 각각 2실점 하면서 아쉬운 역전패를 기록했다. 뒷심 부족으로 패배의 아쉬움을 삼켰던 동강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설욕전에 나선다.
 한편 2004년 창단한 동강대 야구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계리그 3연패를 이뤘고, 지난해에는 U리그 왕중왕전 진출과 전국체전 광주시 대표 자격 획득에 성공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도체육회 줄다리기·줄넘기 활성화

전통스포츠 보급사업 공모 선정
 전남지역에서 줄다리기와 줄넘기 등 전통스포츠가 활성화 된다.
 전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시행한 2020년도 전통스포츠 보급사업에 공모한 결과 줄다리기와 줄넘기 종목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도체육회는 이들 종목을 보급,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6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대회와 강습, 체험박람회 등을 개최하며 도내 전통스포츠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전통스포츠보급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도체육회는 줄다리기, 줄넘기협회와의

긴밀한 공유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무 도체육회 회장은 “전통스포츠보급사업은 우리나라 고유의 스포츠인 전통스포츠를 소중하게 여기며 앞으로 계승해야 할 사명감을 갖게 하는 데 없이 좋은 사업”이라면서 “더 많은 종목에서 전통스포츠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스포츠보급 사업에는 전남, 강원, 대전 등 8개 시도체육회와 대한민국 족구·줄다리기·줄넘기협회 등 총 11개 단체에서 공모했으며, 전체 사업비는 5억5900만원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실업태권도연맹 폭력 단호 대처 ‘드림 앤드 세이프티’ 특위 신설

‘태권 DREAM&SAFETY 특별위원회’
 태권도연맹도연맹 폭력 단호 대처 ‘드림 앤드 세이프티’ 특위 신설
 ‘태권 드림 앤드 세이프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우양태 변호사(왼쪽)와 오혜리 선수(오른쪽)가 김영훈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 /연합뉴스

한국실업태권도연맹은 체육계 폭력행위와 부조리 등을 뿌리 뽑고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태권 드림 앤드 세이프티(DREAM & SAFETY)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실업연맹은 전날 연맹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선우의 우양태 변호사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급 금메달리스트인 오혜리(춘천시청)와 무가스 한혜진 편집장은 위원으로 활동한다.
 실업연맹은 위촉식을 연 이날 김영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실업팀 지도자,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을 발표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스포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크비토바

크비토바-스비톨리나 결승 맞대결

베를린 테니스 이벤트 대회...남자부는 팀-베레티니 격돌

엘리나 스비톨리나(5위·우크라이나)와 페트라 크비토바(12위·체코)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테니스 이벤트 대회 단식 결승에서 맞붙는다.
 스비톨리나는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잔디 코트 시범경기 단식 준결승에서 아나스타시야 세바스토바(43위·라트비아)를 2-0(7-6(7-2) 6-3)으로 제압했다.
 크비토바 역시 키키 베르탄스(7위·네덜란드)를 2-0(6-3 6-2)으로 돌려세우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 대회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가운데 열린 이벤트 대회다.
 함께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도미니크 팀(3위·오스트리아)과 마테오 베레티니(8위·이탈리아)가 결승에서 우승을 놓고 다툰다.
 이 대회에는 제한된 수의 팬들이 입장해 경기를 관전했다.
 잔디 코트 대회가 끝나면 17일부터 베를린의 하드코르트 장소를 옮겨 사흘간 하드코트 대회가 이어진다. /연합뉴스



스비톨리나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반도
2관	반도, 담위터
3관	비바리움, 담위터, 맛있는 녀석들
4관	반도, 담위터
5관	반도
6관	반도
9관	#살아있다
7관 씨네커튼	#살아있다, 그레텔과 헨젤 밤엘: 세상을 바꾼 폭탄소년
8관 씨네커튼	결백, 소리꾼,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p>박주원의 방랑예찬 2020. 7. 22(수)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p>	<p>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p>	<p>오일바람 2020. 7. 29(수) ~ 30(목) 광주문예회관 소극장</p>	<p>동화음악회 2020. 8. 25(화) 11:00, 14: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p>
--	---	---	---